

인신매매 5개파 24명 적발 미성년 납치책등 11명구속

88. 12. 8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채)는 7일 신문·잡지 등에 가짜 구인광고를 내거나 유흥가 등에서 강제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대소녀 1백20여명을 전국 사창가에 팔아넘긴 인신매매조직 5개파 24명을 적발해 이중 포주 정영두(47)씨, 이장호(38)씨, 미성년자 납치책 정병현(28)씨 등 11명을 영리유인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7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6명을 수배했다.

포주 정영두씨는 정병현씨 등 7명을 고용해 이들이 충남 온양 등지에서 납치해온 이 아무개(18)양 등 10대 소녀 22명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14-16 삼화여인숙에 묵게 하면서 수원 시내 목화장, 태양장 등 여관에

보내 윤락행위를 시켜 87년 5월부터 매월 이들이 받아온 화대의 절반액인 총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다른 포주 최용남(45)씨는 10년 전부터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연풍리(속칭 용주골)에 미군을 상대로 컨비클럽을 차린 뒤 인신매매조직으로부터 미성년자를 공급받아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를 갈취했다.

또한 이장호씨는 87년 6월께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72에 파트너카페를 차리고 주간지 등에 경양식집 종업원을 구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소녀들에게 조건이 더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여 40여명을 미아리 텍사스촌 등 윤락가에 팔아 넘긴 혐의다.